

‘자율주행·로봇·드론이 일상’... 최첨단 미래도시 그려진다

로봇·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와 인공지능(AI)이 융합된 미래도시가 광주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며 국정과제로 공식 채택된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국토부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모빌리티 인프라와 인공지능 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춘 미래형 복합 시범도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용역을 통해 미래형도시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2026년에는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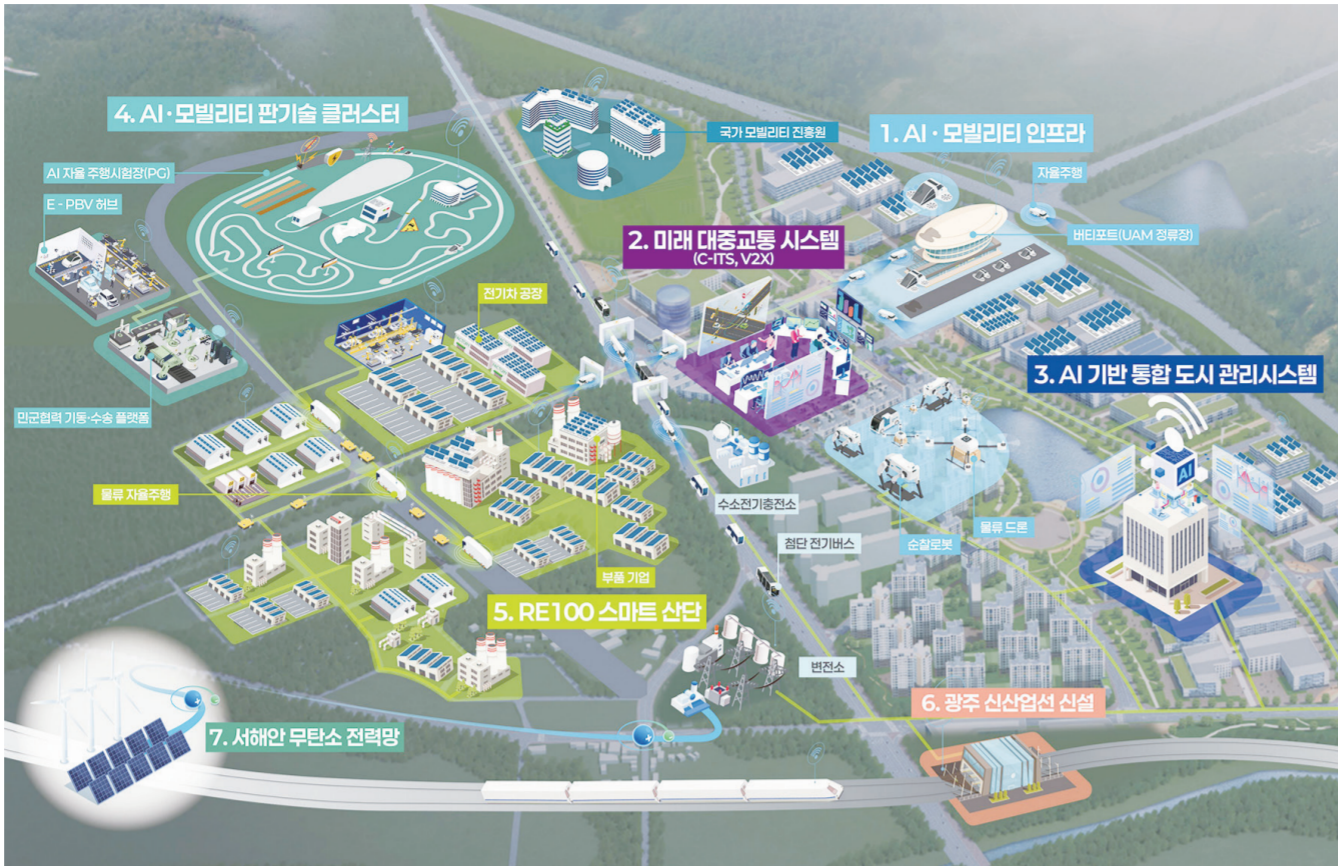
또 규제프리존과 테스트베드를 조성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실증하고 시민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용역은 건축, 도시계획, 도로, 자동차, 로봇, 물류, 인공지능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기업 수요 반영, 실증 규제 발굴, 모빌리티 친화적 인프라 설계 등도 추진한다.

1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미래형도시는 2028년 착공, 2030년 말 준공이 목표다. 자율주행차가 기본 교통수단이 되고 도심항공교통(UAM)이 하늘길을 열며 인공지능 로봇이 택배배송·생활지원 등을 담당한다.

모든 인프라는 인공지능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연결돼 교통체증 없는 최적의 이동경로를 실시간 제공한다.

직장(職)·주거(住)·여가(樂)가 하나로



광주인공지능-모빌리티융합시범도시.

사진=광주시청제공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사전 기획 연구용역 착수 1조5000억원 규모 미래도시 밑그림... 2030년 완공

연결되는 생활방식을 통해 출퇴근 개념이 사라지고 인공지능이 개인의 일정과 선호를 학습해 최적화된 생활패턴을 제안한다. 미래형도시 후보지는 인공지능 인프라 접근성, 미래차산업 연계성, 교통 편의,

주거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해 제조업, 물류 등의 산업에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인공지능을 선점해 인재 등을 집중육성하고 있다”며 “광주에 구축되는 미래형도시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RE100 에너지고속도로와 인공지능을 접목해 광주를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미래도시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국제농업박람회 자원봉사자 9월 30일까지 모집 1365자원봉사 포털 접수... 관람객 동선 안내 등 역할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9월 30일까지 2025국제농업박람회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는 박람회 기간인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박람회장 환경정비, 대표스 김포, 관람객 동선 안내, 주차장 관리 등 박람회의 원활한 진행을 도울 예정이다.

총 420명을 모집하며,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활동 시간은 1일 4시간으로 제한해 오전 30명, 오후 30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1365 자원봉사 포털에 접수하면 된다.

박람회에선 교통비를 포함한 소정의 실비, 유니폼, 자원봉사 시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제농업박람회 행사운영팀(061-330-927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관수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은 “자원봉사자는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닌 박람회를 함께 이끌어갈 운



영 인력”이라며 “자원봉사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2025 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전남 나주 산포면 전남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개최되며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 키우는 K-농업’을 주제로 미래 농업의 비전과 혁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종필 기자

전남도, 미래성장 벤처·스타트업 연구개발·실증 지원 나서 25일까지 모집... 3개 과제 선정 각 최대 8천250만원

전라남도는 지역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미래성장 벤처·스타트업 연구개발(R&D) 및 실증 지원사업’ 수행 기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전남 테크노파크가 전담하며,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유망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올해 처음 도입됐다. 사업은 창업 초기 기업의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이후 시장 진입을 앞둔 시제품을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 하고, 품질 개선, 기술·제품 인증 등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총 3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최대 8천 250만 원(실증 8천만 원·연구 2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설립 6개월 이상 7년 이내 기업으로, 전남에 본사나 연구소를 보유하고, 중앙부처나 전남도의 연구개발(R&D) 지원사업에서 ‘성공’ 평가를 받은 기업이다. 신청은 단독 수행뿐 아니라 지역 안팎의 대학·연구소·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와 전남테크노파크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인 기자

광주시 “전통시장서 소비쿠폰 쓰고 할인받으세요”

대인시장·양동복개상가 등 6곳서 소비쿠폰 최대 10% 할인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지역 6개 전통시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 할인행사를 오는 11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시장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활용해 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시장은 ▲대인시장 ▲남광주해뜨는시장 ▲양동복개상가 ▲봉선시장 ▲

1913송정역시장 ▲우산대일시장 6곳이다. 단 시장별 참여업체와 할인율은 차이가 있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 내 행사 참여업체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행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인 11월30일까지 진행하며, 참여업체 및 할인율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광훈 기자

전국 귀어 희망인 목포서 한자리에

목포대서 전남귀어 스몰엑스포... 14개 어촌계 정보 공유

회 전남본부, 전남귀농산어촌종합지원센터 등 홍보관에서는 창업교육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등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성공적으로 정착한 귀어인의 조언도 들을 수 있다. 전남에 정착한 장문석, 정종훈, 정근영, 박민호 씨는 귀어 준비 과정과 실제 생활 경험을 공유하며, 후배 귀어 희망인들에게 현실적인 팁을 전한다.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는 누리집(http://www.jnsealife.or.kr)을 통해 20여 어촌계의 빈집·일자리·정착 조건을 공개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원하면 개별 상담도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2박 3일간 어촌을 체험하는 ‘전남어촌 탐구생활’과 2주

간 어민 생활을 경험하는 ‘도시민 전남 어민 되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일부 어촌계는 ‘준회원제’를 도입하고 ‘상생계약서’를 작성해 어촌 사회에 원활히 정착하도록 돕고 있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매년 ‘귀어 스몰엑스포’를 열어 전국 귀어 희망인과 어촌계의 교류를 이어왔다. 올해도 그 흐름이 이어져 사전 신청 단계에서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충청권과 영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200여 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매년 150명 이상이 귀어 준비를 위해 어촌계를 찾고, 이 가운데 20여 명이 실제 전남에 새 터전을 마련하고 있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이번



엑스포가 귀어 희망자에게 명확한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바다에서 인생 2막을 열도록 실질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